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윤석민 "연봉 동결 섭섭하죠, 하지만 최고 시즌 만들게요"

'FA 프리미엄' 없이 3억8000만원에 재계약 사인

"WBC 우승·KIA V11로 빅리그 진출 꿈 이루겠다"

"섭섭하지만 끝난 일. 최고의 시즌 만들겠다."

KIA 에이스 윤석민이 8일 지난 시즌과 같은 3억8000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끝냈다.

윤석민은 2012시즌 3.12의 방어율로 9승8패의 성적을 남겼다. 두 차례 완봉승을 거두는 등 3번의 완투도 기록했다.

기대 이상의 성적은 아니지만 FA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예상됐던 'FA 프리미엄'은 없었다. 협상과정에서 특별한 눈치싸움도 없었지만 윤석민은 "솔직히 아쉽다"는 입장이다.

윤석민은 "'동결'방침을 확인하고 구단에 내 의견을 제시했었다. 내 의사를 전달했던 만큼 재차 동결방침이 나오자 바로 도장을 찍었다. 매년 연봉협상을 놓고 속을 태우기도 했고, WBC 준비도 해야하고 나에게나 팀에게나 중요한 시즌이라 시간을 끌고 싶지는 않았다"면서도 "1000만~2000만원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단이 생각하는 내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서운한 부분이 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아쉬움은 남지만 윤석민의 2013시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함께 마운드를 책임져왔던 류현진(LA 다저스)·김광현(SK)이 빠진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윤석민은 예년보다 빠른 페이스로 몸을 끌어올리면서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2013시즌 화려한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한 각오도 남다르다.

윤석민은 투수 4관왕에 올랐던 2011년 'V11'을 이루겠다는 뜻과 함께 미국 진출 대신 KIA 잔류를 선택했다. 야구 인생의 갈림길에 선 윤석민은 우승팀 에이스라는 타이틀과 함께 빅리그로 향하겠다는 꿈을 안고 화려한 2013시즌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윤석민은 "연봉 협상과정에서 올 시즌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있고 자신있다고 말했다. 뜻대로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내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며 "지난 시즌 밸런스가 좋지 못했고 스피드도 떨어졌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잘하겠다. 미국진출이든 FA든 올 시즌 내 몫을 충분히 해낸 뒤에 당당히 얘기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KIA는 윤석민과 계약을 끝내면서 2013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8명중에 42명과 재계약(재계약률 87.5%)을 마쳤다. 미계약자는 서재응, 최희섭, 김상현, 이용규, 김상훈, 차일목 등 6명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메시, 전설이 되다

FIFA 발롱도르 4회 연속 수상 … 크루이프·지단 등 넘어서

라이벌 호날두 제쳐

역대 최다 수상 영예

■ 최근 10년간 FIFA-발롱도르 수상자 ※ 2010년 이후 FIFA-발롱도르 통합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FIFA	지단(프랑스)	호나우지뉴(브라질)		칸나바로(이탈리아)	카카(브라질)	호날두(포르투갈)	메시(아르헨티나)			
발롱도르	네드베드(체코)	셉첸코(우크라이나)								

월드 베스트 11 '월드 베스트 11'에 선정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마르셀루, 세르히오 라모스, 헤라르드 피케, 다니 알베스, 이케르 카시야스, 사비 알론소, 사비 에르난데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리오넬 메시, 라다멜 팔카오(왼쪽위부터 시계방향).

리오넬 메시(26·바르셀로나)가 2012 FIFA-발롱도르(Ballon d'Or)의 주인공이 됐다.

메시는 국제축구연맹(FIFA) 2012년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바르셀로나)를 제치고 FIFA-발롱도르 4연패의 대기록을 썼다.

FIFA-발롱도르는 한 해의 활약상이 가장 빛난 스타에게 주는 상. 4연패를 달성한 메시는 'FIFA 올해의 선수'까지 포함할 때 발롱도르 최다 수상자가 됐다. 그동안 발롱도르 최다 수상은 3회. 요한 크루이프, 마르코 반바스텐(이상 네덜란드), 미셸 플라티니(프랑스)가 세 차례 영예의 주인공이 됐다. 1991년 제정된 'FIFA 올해의 선수상'에서도 메시와 지네딘 지단(프랑스), 호나우두(브라질)가 각각 세 번 골든볼을 받았을 뿐이다.

발롱도르는 FIFA 가맹국 가운데 축구대표팀 주장 162명, 감독 160명, 미디어담당 169명을 상대로 1~3순위까지 후보를 정하게 한 뒤 각각에 5점, 3점, 1점을 부여, 최다 점수로 결정한다. 메시는 총 41.6%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호날두(23.7%)와 이니에스타(10.9%)를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투표 했을까. 대한민국 최강희 감독은 메시, 호날두, 이니에스타를 차례로 꼽았다. 대표팀 주장 하대성(FC서울)은 사비, 부스케츠(바르셀로나), 외질(레알 마드리드) 순으로 투표해 미드필더 다운 시각을 보여줬다.

아르헨티나의 주장인 메시는 팀 동료 이니에스타와 사비를 1-2순위로 꼽았고 대표팀 동료 아게로를 3순위에 올렸다.

스페인의 주장 카시야스(레알 마드리드)는 소속팀의 수비수 라모스에 이어 호날두를 2순위로 꼽았다. 스웨덴의 이브라히모비치(PSG)는 사비, 피를로(이탈리아 유벤투스), 메시 순으로 투표 했다고 밝혔다.

각국 대표기자 169명이 뽑은 1순위 투표 결과 역시 메시가 92표를 얻어 호날두(34표), 이니에스타(18표)를 압도적인 표차로 눌렀다.

지난 한 해 메시는 현대 축구에서 한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 활약을 보였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한 경기에서 5골을 터트렸으며, 14골로 4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다. 프리메라 리가에서는 2011-12 시즌에 무려 50골을 터트려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을 경신했다. 무엇보다 메시는 2012년에 91골을 넣어 게르트 뮐러가 세운 한 해 최다골 기록(85골)을 40년만에 갈아치웠다.

메시는 "팀의 타이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가 나의 최고의 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코파델레이(국왕컵),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제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에게는 아직 꿈이 있다"며 "아르헨티나를 이끌고 세계 챔피언이 되고 코파 아메리카를 들어올리는 게 그 꿈"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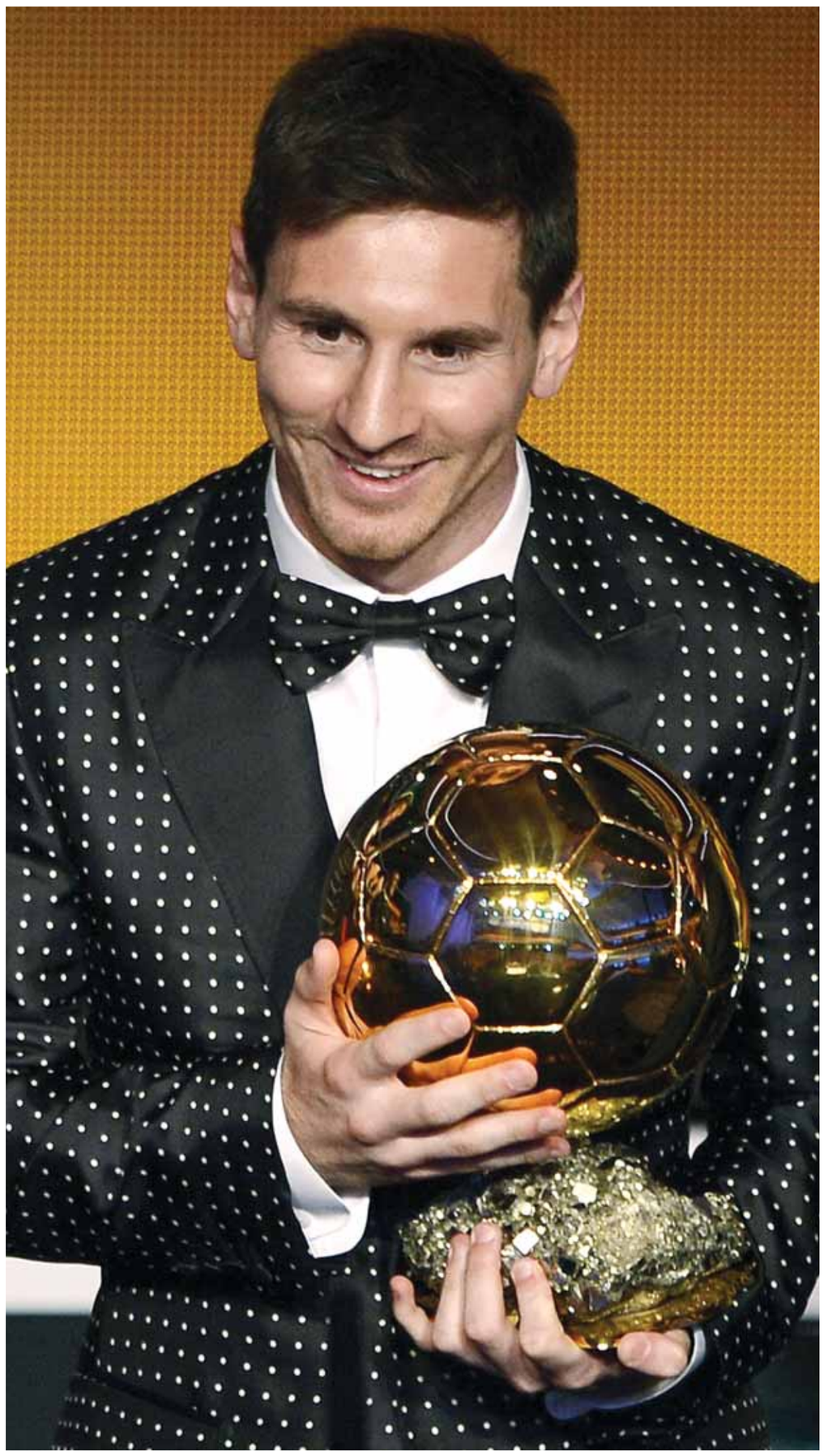
한편 올해의 감독상은 스페인을 올해 유럽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이끈 비센테 델 보스케 감독에게 돌아갔다.

FIFA와 국제축구선수협회(FIFAPro)가 뽑는 월드 베스트일레븐은 모두 프리메라리가에서 뛰는 선수로 채워져 스페인 축구의 전성시대를 알렸다. '신계'로 불리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각각 5명씩을 나눠 가졌고 '인간계'에서는 팔카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단 한명도 베스트 11을 배출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다. 또 FIFA '올해의 여자 선수'에는 미국 대표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애비 웜바크가 선정됐다.

◇ FIFA 월드 베스트 일레븐

▲ **공격수** =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아르헨티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포르투갈) 라다멜 팔카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콜롬비아) ▲ **미드필더** = 사비 에르난데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이상 바르셀로나·스페인) 사비 알론소(레알 마드리드·스페인) ▲ **수비수** = 다니 알베스(바르셀로나·브라질) 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스페인) 헤라르드 피케(바르셀로나·스페인) 마르셀루(레알 마드리드·브라질) ▲ **골키퍼** = 이케르 카시야스(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제관기자 jkyou@·연합뉴스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8일 오전(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2012 FIFA 발롱도르(Ballon d'Or) 시상식에서 발롱도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메시는 지난 한해동안 91골을 터뜨려 독일 게르트 뮐러가 1972년에 세운 한해 최다골 기록을 깨뜨리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지동원 27번

아우크스부르크서 훈련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는 8일(한국시간) 구단의 페이스북을 통해 터키 안탈리아에서 전지훈련을 펼치는 선수들의 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등번호 27번이 새겨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훈련하는 지동원 〈사진〉의 모습을 공개했다.

광양제철고·전남드래곤즈 출신 지동원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에서 뛸 때 등번호 17번을 달았지만 이번에 임대로 아우크스부르크에 합류하면서 비어 있던 27번을 새로 부여받았다.

이번 시즌 선덜랜드에서 출전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한 지동원은 구자철이 뛰는 아우크스부르크에 임대로 합류, 팀의 2부리그 강등을 저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아우크스부르크는 9일과 13일에 각각 한사 로스토크(3부)와 프랑크푸르트(2부)와의 연습 경기를 앞두고 있어 지동원으로선 자신의 기량을 입증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 /연합뉴스

광주 FC 사무처장 박해구씨

박해구(59·사진) 전 광주시 시민협력관이 8일 광주 FC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보성출신인 박 신임 사무처장은 33년간 광주시에서 근무하며 자치행정과장과 비서실장, 경제정책과장, 시민소통과장 등을 역임했다. 박 사무처장은 "우리 선수단이 2부리그 강등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반드시 1부리그로 승격해 명실상부한 명문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광주는 지난달 박흥석 대표이사와 박병모 단장이 2부 강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진에서 물러난 뒤 대표이사, 단장 체제를 대표이사 체제로 일원화하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

태백산 눈꽃 하이원 스키장 곤도라 탑승 기차여행
출발일 1월 25일(금) 22:00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 75,000원
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축제 /트래킹/ 석탄박물관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

정동진 일출 추암 촛대바위/하이원 스키장곤도라 탑승 기차여행
출발일 1월 25일(금) 22:00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 75,000원
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트래킹/ 천제단/ 석탄박물관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

대관령 눈꽃 눈꽃 축제 기차여행
출발일 2월1일(무박2일) 23:30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 75,000원
여행코스 대관령에서 일출관망/알펜시아 스페셜 동계올림픽참관/ 대관령눈꽃축제장